

지상파·중편·케이블 5월의 드라마 전쟁... 장르 vs 로맨스

5월 '드라마 대전'이 시작됐다. 로맨스부터 장르물까지, 평일과 주말을 꽂 채울 신작들이 출격을 준비 중인 만큼 리모콘을 바쁘게 움직일 때다.

지상파는 각각의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낮은 시청률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MBC는 '절치부심'을 키워드로 목격된 신작 두 편을 내놓는다. SBS는 서숙향 작가와 송윤아를 앞세워 '드라마 명가'의 명성을 이어간다. 유일하게 신작이 없는 KBS는 한 발 빠르게 시청자들을 확보한 만큼 시청률 수성에 집중한다.

중편과 케이블도 발 빠르게 시청률 사수에 나섰다. JTBC와 tvN이 로맨스와 장르물로 기대를 높인다면, MBN은 리메이크 작품으로 대전에 뛰어 들 준비를 마쳤다.

◆법정·의학·스릴러까지... 장르물 '우수수' 법의학, 변호사, 형사 등, 5월에는 목격된 장르극들이 시청자들을 찾는다.

먼저 MBC는 새 월화극으로 '검법남녀' (극본 민지은/연출 노도철)를 내놨다. 이 작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배경으로 한 탈(脫) 멜로 드라마로, 완벽주의 괴짜 법의학자와 열정, 허당미 가득한 초임 검사의 공조 수사를 다룬다. 9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배우 정재영, 정유미의 시너지로 호평 속에 첫 방을 내디뎠다.

SBS는 토요일 신작으로 '시크릿 마더' (극본 황예진/연출 박용순)를 전격 편성했다. '워맨스 스펀지'를 표방한 이 작품은 아들 교육에 올인한 강남 열혈맘의 집에 의문의 입시 대리모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12일 첫 방송을 앞둔 '시크릿 마더'는 배우 송윤아, 김소연의 컴백작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데다, 독특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JTBC는 새 월화극 '미스 함무라비' (극본 문유석/연출 광정환)와 새 금토극 '스케치' (극본 강현성/연출 임태우)로 시청률 호조를 이어간다.

먼저 오는 21일 첫 방송을 앞둔 '미스 함무라비'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이상주의 열혈 초임 판사와 선부른 선의보다 원리원칙이 최우선인 초엘리트 판사, 세상의 무게를 아는 현실주의 부장 판사 등 각기 다른 세 명의 재판부가 펼치는 법정 드라마다. 고아라, 성동일, 류덕환 등 연기 구멍 없는 배우진과 '연기불'로 입지를



지상파·중편 등 시청률 확보 나서 각양각색 드라마 신작 10편 우르르

검법남녀 법의학자·검사 공조 수사 **시크릿마더** 독특한 소재로 관심 ↑

훈남정음 시청률 제조기 대거 출연 **이리와 안아줘** 뜻밖의 신예 앞세워

쌓은 김명수가 호흡을 맞춘다.

오는 25일 첫 방송을 앞둔 새 금토 드라마 '스케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여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작품은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운명을 담은 수사 액션 드라마. 정지훈의 2년 만의 복귀작이자, 이동건의 결혼 후 첫 작품인데다, 두 사람이 15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나는 만큼 기대가 모인다.

tvN은 새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 (극본 윤현호/연출 김진민)로 주말 시청

률 사로잡기에 나선다. 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무법변호사'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無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武法) 변호사로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로, 이준기, 서예지, 이혜영, 최민수가 캐스팅됐다.

◆내 취향 저격할 '로맨스'는?

목격된 장르극이 평일과 주말, 곳곳에 포진해 있다지만 로맨스가 주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SBS는 '기름진 멜로' (극본 서숙향/연출 박선호)와 '훈남정음' (극본 이재운/연출 김유진) 등 두 개의 로맨스극으로 평일 밤 시청자들을 만난다.

먼저 지난 7일 첫 방송된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를 통해 유쾌한 로맨스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2010년 드라마 '파스타'로 스타작가 반열에 오른 서숙향 작가가 이번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중화요리로 배경을 옮겨 새로운 로맨스를 그린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여기에 장학과 정려원, 준호가 삼각

로맨스를 그릴 예정으로 궁금증을 높인다.

오는 23일 첫 방송을 앞둔 '훈남정음'은 사랑을 거부하는 비연애주의자 훈남과 사랑을 꿈꾸지만 딱딱한 현실에 연애포기자가 된 정음이 연애불능 회원들의 솔로 탈출을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지는 코믹 로맨스 작품이다. 남궁민과 황정음을 비롯해 심혜진, 오윤아, 이문식 등 '시청률 제조기'들이 대거 출연한다.

여러 차례 로맨스극의 실패를 맛본 MBC는 장기용, 진기주 등 뜻밖의 신예들을 앞세운 새 수목극 '이리와 안아줘' (극본 이아람/연출 최준배)를 선보인다.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이 작품은 살인사건 때문에 엇갈린 삶을 살게 된 남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다.

tvN은 새 월화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타임' (극본 추혜미/연출 김형식)으로 색다른 로맨스를 내놓는다. 배우 이상윤, 이성경, 임세미 등이 출연을 확정된 이 작품은 수명 시계를 보는

능력을 가진 여자 미카와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를 운명에 엮인 남자 도하의 로맨스를 그린다. 동시기 방송되는 작품 중 유일하게 판타지를 가미한 작품인데다, 로맨스와 장르물 연출에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낸 김형식 PD가 연출을 맡은 만큼 기대가 쏠린다.

마지막으로 MBN, 드라마엑스가 야심 차게 선보인 새 수목드라마 '리치맨' (극본 황조윤 박정예/연출 민두식)은 엑소수호(김준민)와 하연수의 독특한 멜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안하무인 천재 사업가 유찬과 알라고 기억력을 가진 최준생 보라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야말로 볼거리가 넘실대는 5월이다.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신작 10편, 이 가운데 시청률과 화제성까지 사로잡을 '왕좌'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진/HB엔터테인먼트·JTBC·tvN·SBS·MBC·MBN

오늘의 날씨

5월 11일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21 ~ 1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7 | 해질 / 19: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변산' 이준익·박정민, 청춘페스티벌에서 만나자

유쾌한 스웱 가득한 청춘 이야기

영화 '변산'의 이준익 감독과 박정민이 오는 12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청춘페스티벌: 아무나 대잔치 - 그냥 아무 '나' 되자" 무대에 오른다.

이번 '청춘페스티벌 2018'은 찬란한 청춘 '동주', 불타는 같은 청춘 '박열'에 이은 청춘 3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이자 가장 빠센 청춘들의 이야기 '변산'으로 돌아온 이준익 감독과 청춘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입증받은 배우 박정민의 출연으로 일찌감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변산'은 이준익 감독의 지금까지 작품들과는 다르게 유쾌한 스웱으로 가득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이준익 감독은 '청춘페스티벌 2018'을 통해 영화 작업을 해 오면서 느꼈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청춘들에게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넨다.

이준익 감독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변산'의 주연배우 박정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표 청춘이자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아 온 배우로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변산'을 통해 발렛 파킹,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빠센 일상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무명 래퍼 '학수'로 완벽 연기 변신을 한 박정민은 이번 '청춘페스티벌 2018'을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